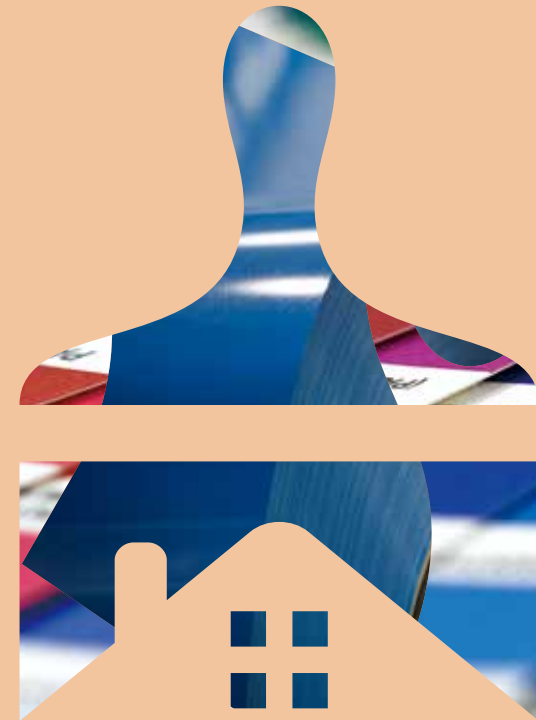


세상에는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날카롭고 차가워 보이는 철에도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은빛의 메탈 자체로 멋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악기와 건축물, 장식품으로 탈바꿈하여 아름다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2019년 <세아가족>에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철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세아가족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사용자의 개성을 나타내는 도구



우리는 컬러로 말한다





컬러 트렌드를 파악하는 색채연구소와 컬러강판을 만드는 세아씨엠은
공통적으로 컬러를 이용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번 호 <세아가족>은 컬러로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우 리 는 컬 러 로 말 한 다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지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을 추천해주세요. 또한 상담이 필요한 고민거리나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이유진 대리
yujin.lee@seah.co.kr
02 6970 0093

〈세아가족〉사보 기자

안미경 세아제강자주 재경파트 (서울)
노승미 세아제강 인사팀 (서울)
이병준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포항)
강태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군산공장)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순천)
정민수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창원)
황미라 세아제강 영남영업파트 (부산)
이정준 세아베스틸 기획팀 (서울)
정보람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 (군산)
허지윤 세아창원특수강 기획팀 (서울)
박소현 세아창원특수강 업무지원팀 (창원)
최성희 세아씨엠 업무지원팀 (군산)
류상우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 (서울)
여환진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 (포항)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 (충주)
윤가영 세아 FS 인사기획팀 (서울)
안광수 세아 FS 업무지원팀 (평택)
정재원 세아 ESAB 재경팀 (창원)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부산)
최경민 세아 M&S 경영지원팀 (서울)
김진우 세아 L&S 재경기획팀 (서울)
이상진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 (대전)
최은누리 세아네트웍스 인재개발팀 (서울)



04. **프롤로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컬러

06. **세상과 함께**
일상에 색을 더하다
— 노루펜톤색채연구소 곽호천 소장

14. **세아와 함께**
차가운 강판에 따뜻한 색을 입히다
— 세아씨엠 군산공장 생산2팀 이창주 팀장

20. **세아 포커스 I**
세계 최대 가스 · 오일 전시회,
가스텍(Gastech) 2019에서 세아그룹을 알리다

24. **세아 포커스 II**
세아이온형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서울대학교 음악미학연구회 2019 학술포럼



28. **철의 장인**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 세아 ESAB 창원공장 생산팀
배경환 공무그룹장

34. **글로벌 리포트**
인도 냉매 부품 분야의 중심에 서다
— 인디아세아(India SeAH Precision Metal)

38. **팀플레이**
공정최적화 활동을 통해 소경공장 재탄생을 꾀하다
— 세아업적상 혁신부문
세아창원특수강 은상 수상팀

44. **최과장의 심리상담**
세아인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48. **세아 패밀리**
추억은 방울방울
아이들과 함께 다시 찾은 그때 그 장소
— 세아홀딩스 재경팀 이미정 수석 가족

52. **도구 열전**
뽀족한 철의 위대한 변신
— 피뢰침

54. **세아 뉴스**

56. **사우 동정**

57.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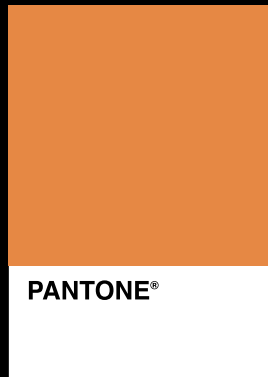


발행일 2019년 10월 21일(통권 383호) ISSN 2636-1787 발행인 천정철 발행처 세아홀딩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02 6970 0093 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Studio KENN

*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컬러

Color



“색은 감성을 가지고 도덕성을 겸비하며,
언어처럼 말을 하고 대중이 알아차릴 수 있는 상징성을 내포한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가 쓴 색채론에 나온 말이다. 괴테는 책에서 색상에 대한 경험주의적인 관점을 주장한다. 이는 색이 단순히 보이는 것, 절대적인 특성을 지닌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감정에 호소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엔 색이 있다. 매일 쓰는 휴대폰부터 책상과 의자, 컴퓨터 바탕화면 그리고 출퇴근길 풍경까지 다양한 색상이 존재한다. 우리는 컬러와 함께 살아 가지만, 컬러가 가진 힘을 확연히 느끼진 못한다. 그렇게 색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감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행동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스타벅스, 에르메스 하면 각각 어떤 컬러가 떠오르는가? 빨강색, 녹색, 주황색 각각의 시그니처 컬러가 떠오르고 제품이 연상될 것이다. 이처럼 컬러는 우리에게 맛, 소리, 모양과 같은 다양한 감각의 이미지도 함께 전달한다. 컬러는 지금도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색 조합이 가능해졌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색을 가진 '색의 풍요 시대'에 살고 있다. 200년 전, 괴테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 컬러는 시선을 움직이고, 시간을 바꾸며, 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컬러는 백 마디 말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세상과 함께

PANTONE®

17-4111 Citadel

일상에 색을 더하다

노루팬톤색채연구소 곽호천 소장



노루팬톤색채연구소는 글로벌 컬러 트렌드, 컬러 커뮤니케이션의 표준으로 주목받는 미국의 팬톤색채 연구소와 국내 대표 페인트 기업 노루페인트의 노루색채연구소가 제휴해 만든 곳이다. 매년 컬러트렌드쇼 (NCTS)를 진행하며, 컬러 아카데미를 운영해 많은 공간 컬러 컨설턴트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건축, 자동차, 가전, 패션,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컬러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노루팬톤색채연구소 곽호천 소장을 만나 컬러가 가진 힘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인간의 심리에 따라 변화하는 컬러 트렌드

인간의 눈에는 망막이라는 기관이 있다. 망막에는 색을 지각하는 추상체와 명도를 지각하는 간상체가 있다. 200개의 색과 500단계의 명도, 20단계의 채도를 지각해 총 2백 만개의 색을 지각할 수 있다. 거기에 질감, 광택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과 지각을 통해 반응하는 심리적인 특성까지 더하면 컬러로 표현 가능한 수는 우주와도 같다.

물론 인간보다 시각적으로 더 우수한 독수리, 부엉이와 같은 동물도 있고, 인간 눈의 한계를 극복한 광학기계, 카메라, TV도 있다. 하지만 컬러를 보고 감성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다. 노루펜톤색채연구소 광호천 소장은 이러한 인간의 특성이 ‘컬러 테라피’, ‘컬러 트렌드’와 연관된다고 말했다.

“색상을 보고 느끼는 감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만약에 ‘Red가 좋아’, ‘요즘 Red가 유행이야’라고 해서 모든 세상을 Red로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감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지루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 1 - 광호천 소장 and 노루코일코팅 한재권 영업팀 팀장이 페인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2 - 노루페인트는 팬톤의 2,300여 개 컬러를 정확히 구현해낸 프리미엄 친환경 페인트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든 컬러

컬러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다. 의류, 가전제품, 핸드폰, 자동차, 건축물 등등 산업 전반에 포함되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요즘 가전제품 시장에는 컬러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다. 백색가전은 옛말, 최근에는 다양한 컬러의 프리미엄 가전이 출시되고 있다. 광 소장은 가전제품의 컬러 트렌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톡톡 튀는 색감으로 홈 인테리어와 어울릴 수 있는 컬러 매치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호에 따른 유니크한 패턴과 맞춤형 조합은 필수입니다. 또한 메탈 소재에 반무광·무광 처리를 하여 차가운 느낌을 덜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질감이 느껴지도록 하는 차별화 기법이 대세죠. 대형가전의 경우 샴페인 골드, 메탈 브라운, 쿠퍼와 같이 우리의 삶을 감싸 안아 줄 것 같은 따뜻하고 아늑한 톤으로 변화 중입니다. 프리미엄 사양의 경우, 제품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미니멀리즘을 강조하기 위해 무게감이 있는 블랙과 다크 그레이 컬러에 주목하고 있죠. 1인 가구의 확대로 소형 가전의 경우, 실용적이고 유니크한 감성의 파스텔컬러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 3 - 곽호천 소장이 철강용 PCM 도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4 - 노루팬톤색채연구소는 매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컬러&디자인 트렌드 세미나 NCTS를 개최한다.

3

“컬러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혜택이나 다름없습니다.
컬러는 아무리 많이 써도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자원이지요.”



4

이처럼 프리미엄 컬러강판의 인기는 높아지는 추세다. 노루페인트 자회사 노루코일코팅에서는 철강용 PCM 도료를 생산해 세아씨엠 등 철강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노루코일코팅은 코일 코팅(Coil coating)만을 전문으로 하여 임직원의 45%가 연구기술 인력이다. 노루코일코팅 철강용 PCM 도료는 세아씨엠을 통해 대리석이나 나무 무늬를 표현하는 초고 내후성 프린트 컬러강판, 부드러움과 주름진 느낌까지 내는 의장성 컬러강판, 친수 기능 등을 확보한 기능성 컬러강판 등으로 재탄생된다.

컬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색채연구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앞을 내다보는 독창적 시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세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하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교차하고 있다. 미래의 변화에 대한 조짐을 보여주는 트렌드 워칭이아말로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 상상력의 원천이며, 세상의 변화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희망의 출발점이다. 곽 소장은 자신과 노루팬톤색채연구소의 역할은 컬러의 가치를 발굴하고 창조해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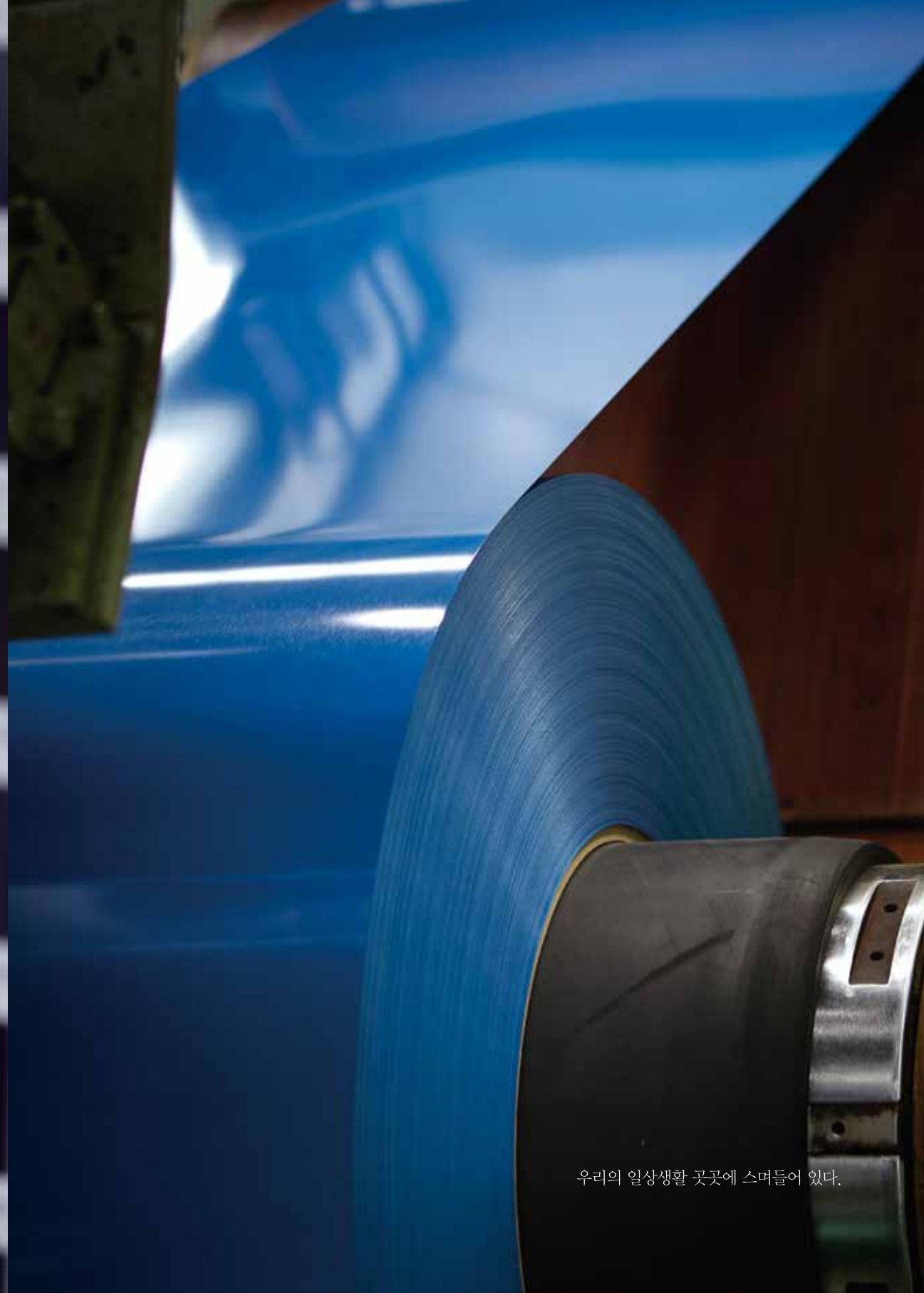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은 시대의 변화를 리드해 나가는 집단입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를 직감적으로 창조해 내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많은 일반 대중들은 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작품들을 선행하고 따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트렌드를 주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디자이너’라고 총칭했을 때, 디자이너들한테 자신의 창조적인 작품을 가장 돋보이는 예술작품으로 표현하기 좋은 재료를 공급하고, 창의적인 설계를 할 때 영감을 주는 회사, 컬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컬러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곽 소장와 노루팬톤색채연구소의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묻자, 컬러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컬러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혜택이나 다름없습니다. 컬러는 아무리 많이 써도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자원이지요. 컬러의 부가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이와 같은 컬러의 특성을 활용해 개인, 기업, 사회,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다채로운 컬러는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세아와 함께

PANTONE®

Pantone 1665c

차가운 강판에 따뜻한 색을 입히다

세아씨엠 군산공장 생산2팀 이창주 팀장



세아씨엠은 1998년 컬러강판 상업 생산을 시작해 2011년 컬러강판의 고급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2017년부터 카멜레온 강판, 프린트 강판, 실버라인 강판 등 신제품들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표면 처리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세아씨엠에서 생산하는 컬러강판은 건축 내외장재를 비롯해 냉장고, 가스 레인지, 세탁기, 오디오 및 기타 가전제품 등 곳곳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돌파구가 되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국내 건설사, 자동차 제조사, 가전제품 생산사 등 주요 산업이 대규모 부진했고, 철강산업도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세아제강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1997년 군산에 컬러강판 공장을 신축했고, 98년에는 본격적으로 컬러강판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이창주 팀장은 1996년 세아제강 판재사업본부에 입사해 컬러강판의 시작과 함께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세아제강은 1990년대 강판 분야 국내 부동의 1위 기업으로, 종합철강기업으로서 성장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철강 산업의 큰 시장인 판재 사업으로의 다각화였죠. 1995년 11월부터 K-Project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사업 초기 생소한 사업을 진행하고 외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고, 앞친 데 덮친 격으로 IMF가 터지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죠. 하지만 전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우직하게 일한 결과, 1998년 16만 톤 규모의 #10CL(코일코팅라인)을 통해 최초 컬러강판 상업 생산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세아제강은 꾸준히 컬러강판을 생산해 2007년 누적 판매량 100만 톤을 달성했다. 2011년에는 #20CL을 증설했고, 2017년 공정합리화를 통해 컬러알루미늄판, 불소수지강판, 가전강판, 프린트강판, 라미네이트강판, 엠보강판 등 특수용 고급제품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또한 2017년 7월 1일부로 세아제강의 판재사업부에서 물적분할을 통해 ‘세아씨엠’이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는 소재가 되다

컬러강판은 용융아연도금강판(GI), 전기아연도금강판(EGI), 용융 55% 알루미늄-아연합금 도금 강판(GL), 알루미늄강판(AL) 등 강판 소재에 도료를 양면 또는 한 면에 균일하게 도장한 제품을 말한다. 컬러강판 제조 시 도료 도장은 강판 소재의 내식성과 내구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컬러를 입혀 금속의 차가운 느낌을 없애는 등 심미성을 부여하는 표면 처리 기술이 적용된다. 컬러강판은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패턴과 디자인, 색상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어 주로 건축 내·외장재 및 가전용으로 사용된다. 이 팀장은 세아씨엠의 컬러강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

“세아씨엠에서는 폴리에스터수지 강판(RMP), 고내후성 강판(HDP), 하이폴리머수지 강판(HPP), 불소수지 강판(PVDF), 컬러 알루미늄 강판(Pre-Painted Aluminum Coils)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설명하면, 고객이 원하는 독특하고 미려한 제품을 주문 제작할 수 있는 폴리에스터수지 강판(RMP)은 공장 지붕 및 벽체, 창고 및

- 1 - 다양한 컬러강판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는 이창주 팀장의 모습
- 2 - 고객사의 요구에 맞게 생산된 컬러강판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표현하는 본연의 정체성들은 컬러강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여러 주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3 - 세아씨엠 컬러강판의 주재료인 PCM용 도료는 주로 노루코일 코팅에서 공급받는다. 세아씨엠 군산공장에 상주하는 협력사 직원들과 이창주 팀장의 모습.
- 4 - 세아씨엠에서는 다양한 컬러와 무늬의 컬러강판을 생산하고 있다.
- 5 - 프린트(PRINT) 제품은 다양한 패턴과 고급스러운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



조립식 건물, 파티션, 방화문, 간판 등에 사용됩니다. 고내후성 강판(HDP)은 기후 변화에 매우 강한 고내후성, 고내열성 제품으로, 지붕재, 벽체, 칸막이, 방화문, 외장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외관, 미려한 표면이 특징인 하이폴리머수지 강판(HPP) 제품은 건축 내장재,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오디오 및 기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며, 불소수지 강판(PVDF)은 산업공해 지역 등 극심한 부식 환경용 내외장재로, 컬러 알루미늄 강판(Pre-Painted Aluminum Coils)은 고급 건물의 내외장재로 쓰입니다.”

세아씨엠은 프린트(PRINT)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프린트 제품은 일반건축 내장재와 외장재, 방화문, 가전제품 측면과 도어에 사용된다. 베이스 코팅 후 오프셋방식으로 강판 표면에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인쇄해 기존 강판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세련되고 화려함을 표현한 제품이다.

“#2CCL 설비 합리화 이후, 1도부터 4도까지의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했고, 현재 국내외 바이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2,818t이라는 최고 생산 기록을 달성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출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그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프린트 제품은 주로 노루페인트 도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함께 고객들에게 더 다양한 패턴과 컬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2018년 내수와 수출을 합친 컬러강판 생산 출하량은 약 226만t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규모다. 건물과 가전 외관에 대한 디자인이 강화되면서 컬러강판의 수요가 늘고 있다. 세아씨엠의 컬러강판 역시 건물과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창주 팀장에게 컬러와 컬러강판은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컬러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본연의 정체성들은 컬러강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여러 주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컬러강판 제품을 통해 세아가족 여러분도 이면에 자리한 아름다움과 미적 감성을 일깨워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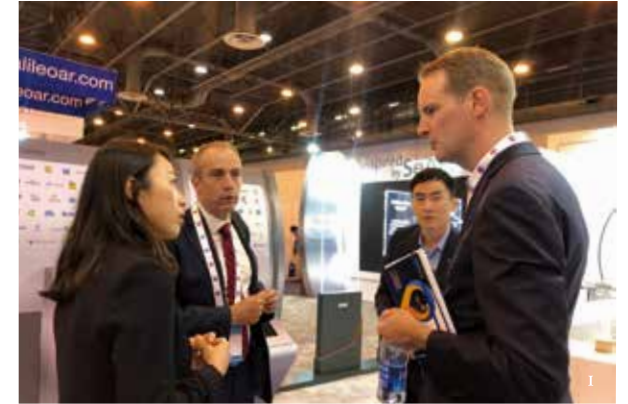
차갑고 단단한 철판을 부드러움과 따뜻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컬러강판. 최근에는 단색을 벗어나 다양한 색상과 무늬, 텍스처 등을 입혀 강판이라는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세아씨엠의 컬러강판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곳곳에서 사용되며, ‘세상을 아름답게’ 빛내주고 있다. ☺

세계 최대 가스·오일 전시회, 가스텍(Gastech) 2019에서 세아그룹을 알리다

세아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가스·오일 전시회 가스텍(Gastech)에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NRG센터에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되었으며, 100개국 7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해 제품과 마케팅을 선보였다. 세아그룹 역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세계에 '세아'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I - 관람객에게 세아그룹 및 사업영역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글로벌 가스·오일 산업의 중심지, 휴스턴에서 열린 가스텍 2019

세아그룹은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가스텍 2019에 참가했다. 올해 31회를 맞은 가스텍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가스·오일 전시회로, 세계가스총회(WGC), LNG컨퍼런스와 함께 세계 3대 국제 가스·오일 전시회 중 하나로 손꼽힌다. 지난해까지 18개월 주기로 개최되었는데 이번 전시회를 기점으로 12개월 주기에 걸쳐 열릴 계획이다. 올해 전시회에는 100개국 약 700개사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들이 참가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였다. 셸(Shell), 엑손모빌(ExxonMobil),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등 세계 오일메이저들뿐만 아니라 각국 국영 석유회사들이 대거 참가했고, 국내 기업으로는 세아그룹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KOGAS),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참가했다. 세아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가스텍에 그룹 공동으로 참가했다. 작년과 동일하게 세아홀딩스가 주관하고,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INOX TECH이 함께 참가했다. 본 전시회 담당자인

세아홀딩스 이유진 대리는 이번 가스텍 2019에 참여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세아브랜드관리위원회의 브랜드 활동 일환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스텍에 그룹 최초로 공동 참가하였고 참가한 계열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대외적으로 세아의 브랜드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세아 계열사의 사업군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오일 메이저사들이 모여있고 석유의 고장이자 자사 법인이 위치한 휴스턴에서 전시가 개최되어 다시 한번 세아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그룹 통합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부각한 세아그룹 부스

세아그룹 부스는 작년 170.5m²보다 더 큰 187.5m² 규모로, 지난해보다 전시장 내 중심부에 자리해 세아의 사업군과 제품들을 널리 알렸다. 이번 부스의 컨셉인 '세아는 전 세계 LNG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스틸 소재/제품 형상(파이프 및 봉강), 고유 컬러를

디자인에 접목시켜 세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부각시켰다. 특히 각 사의 주력제품을 모형화한 작품들을 부스 입구에 전시했고, 행잉 배너에 이미지를 삽입하여 관람객들이 당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부스 곳곳에는 세아 브랜드를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공간이 마련되었다.

세아 부스를 방문한 주최사와 참가사들은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고, 인상적인 디자인을 구현한 부스’, ‘매우 눈에 띄는 디자인’이라 평가했고, 전시장 주요 출입구에서부터 시선이 집중되어 자연스럽게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세아 부스에서는 전시회 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가량 투호 놀이와 막걸리 시음 이벤트를

- 2 - 세아 테디베어를 고르는 관람객의 모습
- 3 - 철의 소리 영상을 관람하는 방문객의 모습
- 4 - 관람객들은 한국 전통 투호놀이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 5 - 이번 가스텍 2019에 참여한 각사의 전시회 담당자 단체 사진

개최했다. 이벤트를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형성하고, 신규 고객 발굴 및 부스 내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함이었다. 한국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한국 전통 놀이와 음료를 제공해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했다. 또한, 철강 기업 정체성을 홍보하기 위해 투호놀이를 진행할 때 강관 모양의 통과 라이징 커브 디자인 화살을 제작하여 사용했다. 기대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이벤트에 참여했고, 자연스러운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벤트용으로 제작된 세아 테디베어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았다. 이유진 대리는 “이번에 세아 부스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이 나중에 테디베어를 보면서 ‘세아’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추억만 떠올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 세아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이번 가스텍 전시회를 통해 세아그룹은 그룹 통합 참여로 인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가스·오일 시장 내 ‘세아’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아울러 당사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고객과 관람객 수가 예년 대비 증가했고, 비즈니스 미팅 및 이벤트 참가율이 높아졌다. 미국 법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활성화 할 수 있었고, 특히 현지 직원들이 세아 브랜드를 심층적으로 더 이해하는 기회로 작용했다.

세아그룹은 이번 11월에는 아부다비에서 개최되는 중동 최대 가스·오일 전시회인 아디펙(ADIPPEC)에도 그룹 통합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현재 중동 시장 전역으로도 영업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아디펙 전시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 ☺





세아이운형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서울대학교 음악미학연구회 2019 학술포럼

2019년 8월, 세아타워 4층 오디토리움에서 '세아이운형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서울대학교 음악미학연구회 2019 학술포럼'이 개최됐다. '오페라, 시대를 지휘하다'를 주제로 한 공개 강연회 형식의 이번 포럼은 오페라 속의 시대를 이해하고, 오페라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회로 빛을 발했다.

오페라, 예술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이번 학술포럼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서울대학교 음악미학연구회가 주최하고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후원했다. 이번 학술포럼의 주최자이기도 한 서울대학교 음악미학연구회는 음악 미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현직 음악학자와 서울대학교 음악학 전공 석·박사 학생이 중심이 돼 결성한 단체다.

이번 학술포럼을 후원한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순수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후원한 세아그룹 故 이운형 회장의 뜻을 기려 2013년에 설립한 재단이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열정과 노력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장학 사업과 학술 지원 사업으로 가능성을 가진 영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후원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의 감동을 선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음악미학연구회의 오페라와 음악학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에 학술연구기금을 후원해왔다. 이에 힘입어 음악미학연구회는 오페라 주요 작품을 미학적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망라한 음악 전문 총서를 꾸준히 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학술포럼을 준비한 오히숙 음악미학연구회 대표 겸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는 “음악미학연구회는 음악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연구하는 학술 모임이다. 음악미학연구회가 연구하는 음악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대중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닿아 세아이운형문화재단과 함께 학술포럼을 마련했다. 이 자리가 사람들이 예술을 좀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폭넓은 시대를 아우르는 오페라 네 편

이번 학술포럼은 박의숙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이사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박의숙 이사장은 “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순수 문화예술과 오페라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가운데, 이렇게 학술적 발전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곧 시작되는

학술포럼에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시대를 지휘해 온 장르로서의 오페라를 다룬다고 하니 굉장히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페라의 실연(實演)과 그 미학적 연구를 위해 쏟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대한민국 오페라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뒤이어 원유선 서울대 음악학 박사의 진행으로 본격적인 학술포럼이 펼쳐졌다. 이번 학술포럼은 국내 오페라계와 음악학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용숙 서울대 공연예술학 박사 겸 오페라 평론가를 비롯해 전정임 충남대 음악과 교수, 이해진 서울대 음악학 박사 겸 충남대 예술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김석영 서울대 음악학 박사과정생이 강연자로 나섰다. 강연자들은 헨델의 ‘리날도’와 베르디의 ‘돈 카를로’, 탄둔의 ‘진시황’, 윤이상의 ‘심청’까지 모두 네 개의 오페라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강연자들의 오페라 소개 외에 강연자들과 대중 사이의 토론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토론 시간에는 오페라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강연자들이 오페라를 즐기는 대중과 격의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오페라를 통해 이해하는 시대, 그리고 세계

무엇보다 이번에 소개된 오페라는 바로크와 낭만주의, 근대를 거쳐 동시대 작곡가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시대를 아우르며 각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헨델의 ‘리날도’는 11세기 십자군 전쟁을, 베르디의 ‘돈 카를로’는 19세기 유럽의 정치적 이상과 휴머니즘을, 탄둔의 ‘진시황’은 약 2200년 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을 둘러싼 시대적 배경을 포함하고, 윤이상의 ‘심청’은 개인의 도리인 효를 넘어 보편적 인류애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또한 바로크 시대의 정통 오페라인 헨델의 ‘리날도’와 이탈리아의 대표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의 ‘돈 카를로’를 통해 전통적 오페라 세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 1 - 세아이운형문화재단에서는 음악학 연구 지원을 통해 음악 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 2 - 박의숙 세아이운형문화재단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3 - 참석자들에게 학술포럼 프로그램이 담긴 팸플릿이 배부되었다.
- 4 - 이번 포럼에는 토론 시간이 마련되어 강연자와 대중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윤이상의 ‘심청’과 탄둔의 ‘진시황’은 한국과 중국의 현대 작곡가가 이 장르를 어떻게 수용해 창조적 작품을 만들어 냈는지를 통해 오페라가 더 이상 서양에 속한 장르가 아님을 보여줬다. 이번 학술포럼에서 만난 오페라 네 편은 한 시대를 관통하며 이를 통해 각 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작품이었다. 이 덕분에 대중은 오페라라는 예술이 정치와 사회, 권력으로서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됐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시대를 지휘하는 오페라의 다양한 양상을 통해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충분했다. ☺



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세아 ESAB 창원공장 생산팀
배경환 공무그룹장

배경환 공무그룹장은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공장의 설비보전을 위해 힘써왔고, 지금도 현장에서 설비 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공무'라는 직무의 특성상 사내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그는 업무에 임할 때 '역지사지'를 항상 머릿속으로 되낸다.

- 1 - 인터뷰에 응하는 배경환 그룹장의 모습
- 2 - 배 그룹장 자리 뒤편 게시판에는 안전 교육훈련 리포트로 빼곡했다.
- 3 - 공장 한쪽에는 정비에 필요한 도구들이 세팅되어 있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

세아 ESAB 생산팀 설비보전을 맡고 있는 배경환 그룹장을 만났다. 배 그룹장은 1979년 당시 삼미금속에 입사해 세아 E&T(현, 세아엔지니어링)를 거쳐,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세아 ESAB에 몸담고 있다.

“저는 공업고등학교에서 기계를 전공하고, 선반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1979년에 첫 직장인 삼미금속에 입사했습니다. 1994년 세아제강의 전신인 부산파이프에서 삼미금속의 스테인리스 및 특수용접봉 스테인리스와이어 사업부문을 인수했고, 제가 소속된 경남 함안 파수공장 역시 부산파이프에 인수되었습니다. 부산파이프는 세아금속(현, 세아메탈)을 신설했고, 저는 세아 E&T(현, 세아엔지니어링)로 소속을 옮겨 같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공장 합리화 작업을 통해 세아메탈의 용접봉 파트가 창원공장으로 이전했고, 당시 세아 ESAB 대표이사님께서 설비 관리 전제를 책임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동안 소속이 바뀌고 공장 설비가 자동화되면서 근무 환경이 달라졌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에게 기계 정비 일은 항상 재미있는 일이고, 저는 이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 그룹장은 지난 40년 동안 설비 관리 공무를 수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왔다. 그의 노력을 회사에서도 높게 평가했고, 지난 2015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공무는 공장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배경환 그룹장은 세아 ESAB 생산팀 공무그룹장으로, 1공장과 2공장 내 모든 설비 보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가 맡은 공무는 한마디로 공장 생산설비의 고장을 복구하고, 생산설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또한 공장의 핵심 동력인 전기와 압축공기, 냉각수 등의 공급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아울러 공장 내 각종 전기, 배관, 설비의 공사와 리모델링 작업을 수행해 공장의 에너지 관리와 생산 효율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세아 ESAB은 종합용접기업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플렉스 코어드 와이어(FCW) 제품을 국내 최초로 생산해 국내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플렉스 코어드 와이어(FCW)를 비롯해 스테인리스 아크 용접봉, 솔리드 와이어, 티그 와이어, 서브머지드 플렉스·와이어 등 용접 재료를 생산합니다. 당시는 일종의 장치 산업으로 설비의 관리가 안전, 품질, 생산성의 중요한 인자입니다. 제가 맡은 공무는 생산의 주요 인자인





설비를 정상적인 상태로 가동할 수 있게 유지하고, 설비의 효율을 향상하는 등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 업무는 설비 보전의 전문가로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내부 임직원과 많이 교류하므로 서비스 정신과 공동체 의식이 요구된다. 배 그룹장은 일을 처리하다 보면 답답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항상 역지사지의 태도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의 한자성어로 항상 머릿속에 되새기는 말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문제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 간에 항상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에 대한 만족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직장 생활에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다소 손해 보더라도 양보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술선수범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설비 관리 전문가인 배경환 그룹장은 전문가를 키워내는 멘토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후배들이 제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술선수범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처음 설비 관리 업무를 맡았을 때는 어려움도, 고민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니 좋은 성과는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세아 ESAB에 편입할 당시 공무반 업무를 맡겨주신 이종영 사장님의 배려와 리더십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을 본받아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잘 전수하고 회사 발전에 일조하고 싶습니다.” 배 그룹장은 오랜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정년을 1년 남짓 남겨놓고 있다. 그에게 지난 소회에 대해 물었다.

“뒤돌아보니 40년의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온 것 같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생각은 많이 해보았지만, 막상 말로 하려니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지금까지 기계 정비일밖에 몰랐는데,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제 2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들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목표를 위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시다. 우리 모두 파이팅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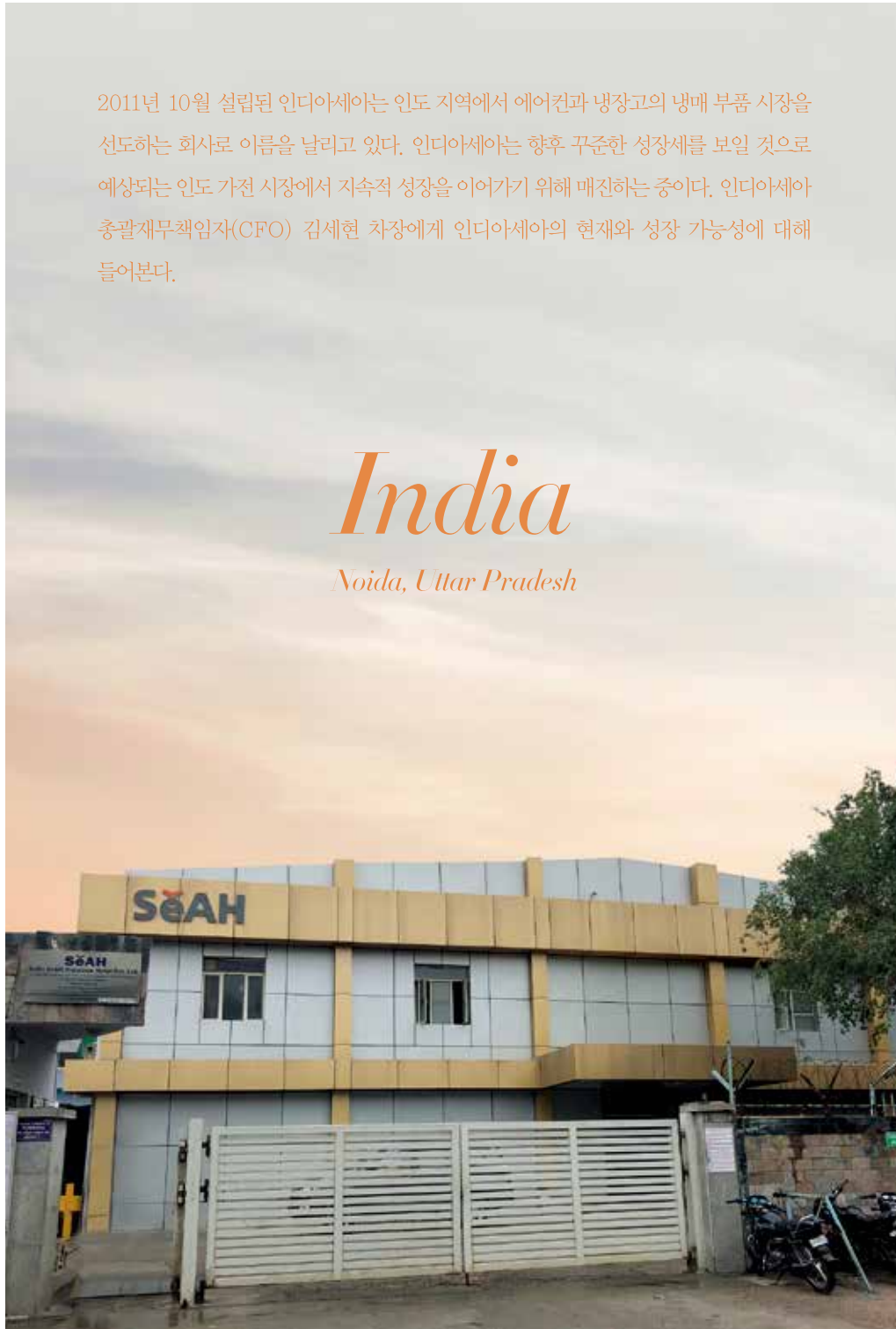
4 -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배경환 그룹장의 모습

5 - 도구함에 일렬로 정리된 스패너

2011년 10월 설립된 인디아세아는 인도 지역에서 에어컨과 냉장고의 냉매 부품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인디아세아는 향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가전 시장에서 지속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매진하는 중이다. 인디아세아 총괄재무책임자(CFO) 김세현 차장에게 인디아세아의 현재와 성장 가능성에 대해 들어본다.

India

Noida, Uttar Pradesh



인도 냉매 부품 분야의 중심에 서다

인디아세아(India SeAH Precision Metal)

글. 인디아세아 CFO 김세현 차장

고객사 인접 지역에 3개의 거점을 마련하다

인디아세아는 2011년 10월, 세아FS가 삼성에 에어컨과 냉장고 부품 파트를 생산·납품하던 한성메탈을 인수해 설립한 뒤 지금까지 인도 시장에서 에어컨 및 냉장고의 냉매 부품 분야를 선도해왔습니다. 주력 생산품은 동관을 원자재로 구매한 뒤 가공한 에어컨 및 냉장고 냉매 사이클 부품, 타이세아 스틸 튜브를 구매한 뒤 가공한 냉장고 냉매 사이클 부품입니다. 인도는 면적이 세계 7위인 나라로 주별로 거리가 상당히 멀니다. 이에 인디아세아는 주요 고객사 인접 지역에서 생산·납품하기 위해 노이다와 첸나이, 푸네 지역에 각각 공장을 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 위치한 노이다 공장에서는 에어컨 부품 가공 공장과 냉장고 사이클

부품 가공 공장을 운영합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 다이킨(Daikin), 메이디(Midea), 캐리어(Carrier), 고드레지(Godrej) 등입니다. 다음으로 인도 남동부 타밀나두주에 있는 첸나이 공장에서는 삼성 에어컨과 냉장고 사이클 파트인 스틸, 동가공 부품을 생산·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중서부 마하라슈트라주의 푸네 공장에서는 LG 상업용 에어컨 파트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룸에어컨, 냉장고 냉매 사이클 가공 부품을 공급합니다.

세아FS가 한성메탈을 인수할 당시 고객사는 삼성뿐이었지만 지금은 LG, 다이킨, 메이디, 캐리어 등 1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안주하지 않고 각 공장 지역에 있는 로컬 고객사를 대상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디아세아의



1 - 노이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주재원과 현지 직원들
2 - 푸네공장 현지 직원들
3 - 첸나이 공장 직원 단체 사진

매출은 2012년 101억에서 2018년 412억으로 6년 동안 매출 신장 408%를 달성했으며, 올해 500억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이에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한 공장별, 고객사별, 생산품별 세부 추진사항을 수립해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 가전 시장의 최강자를 꿈꾸다

인도 가전 시장의 미래는 밝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 가전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디아세아의 주력 생산품인 냉장고와 에어컨 부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냉장고 시장은 향후 5년 동안 6.3%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인도의 냉장고 보급률이 약 30% 수준이고 1도어 소형 냉장고 위주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에어컨 시장 또한 향후 5년 동안 8.8%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인도의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6% 수준인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앞으로 인도 에어컨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무척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디아세아는 이런 인도 가전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 매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도 지역은 다양한 민족, 종교, 문화, 성향, 언어 등으로 관리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근로자 대부분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수드라 계급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노동법이 복잡하고, 최저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행정 절차의 경우 업무 대부분이 오프라인으로 이뤄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인도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인디아세아는 직원들이 현지 업무를 수행할 때 겪는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지인들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성향을 받아들여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합니다. ☺

김세현 차장이 전하는 인도 문화



인도 문화 중 한국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인도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디왈리 축제입니다. 디왈리 축제는 힌두 달력 여덟 번째 달(카르티카) 초승달이 뜨는 날을 중심으로 다섯 동안 집과 사원 등에 등불을 밝히고 힌두교 신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전통 축제입니다. 지역별로 숭배하는 신이 다르거나 행하는 의식이 약간 차이 나기는 하지만, 축제 기간에 작은 등불이나 촛불, 향을 피워 집과 마을을 환히 밝히는 것은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디왈리 축제는 '빛의 축제'라 알려져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어둠은 '무지'와 '악(惡)'을 상징하고, 빛은 '지혜'와 '선(善)'을 상징합니다. 이에 따라 불빛은 악에 대해 선이 늘 승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것은 사악한 욕망, 분노, 욕심, 고통, 두려움 같은 부정적 기운을 물리치고 건강, 지혜, 평화, 용기, 부 등을 가져다줄 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힌두교도들은 디왈리를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디왈리를 맞아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옷을 마련해 입고 가족·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신들을 향해 감사 기도를 올리며 서로 선물을 교환합니다. 이는 새로운 해를 신의 보호와 축복 아래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디왈리 축제가 추수 감사 축제의 의미를 지닙니다. 축제가 시작되는 시기는 가을 추수가 끝난 때로, 인도 서부 지역에서는 갯 수확한 쌀로 만든 요리 포하(Poha)를 준비해 여럿이 함께 나눠 먹습니다. 디왈리 축제 기간이 되면 거의 모든 집은 등이나 전구로 밤새 빛을 밝히고 집안 곳곳에 색 가루를 뿌립니다. 또한 폭죽을 집 안팎에서 계속 터뜨리며 축제를 기념합니다.





공정최적화 활동을 통해 소경공장 재탄생을 꾀하다

세아업적상 혁신부문 세아창원특수강 은상 수상팀

세아창원특수강 소경공장은 국내 유일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 (Seamless Pipe)을 생산한다. 해당 공장은 1977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해 지난 42년간 세아창원특수강이 국내 No. 1 특수강 전문 제조회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해왔다. 무계목 강관 제조 특성상 설비가 중요한데, 지난 40년간 가동된 소경공장은 설비 열화가 가속되고 작업환경이 오염되었다. 이에 세아창원특수강은 공정 최적화 활동을 통해 소경공장을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Everyone

소경공장 모든 이가 이뤄낸 결과다

세아창원특수강 소경공장은 국내 유일의 스테인리스 무계목 강관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1977년부터 40년 넘게 가동해 설비의 노후화가 심화되었다. 이에 소경파트 정재욱 파트장을 포함한 7명의 팀원은 공정최적화 활동을 실행해 소경공장을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정재욱 파트장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소경공장 공정최적화 활동은 팀장(파트장)이 활동을 책임지는 오퍼로, 안전기술주임이 현장에서 직접 솔선수범하고 공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총괄 리더로, Key-job 또는 주임이 리더 역할로 참여했습니다. 소경공장을 50개의 활동장소로 구분해 50명의 리더와 225명의 팀원이 한마음으로 소그룹 활동을 실행했습니다. 세아업적상을 받은 직원 수는 제한적이지만 사실 소경공장 직영 및 협력사 직원 전체가 모두 수상팀입니다.”

이번 공정최적화 활동에서 눈에 띄는 점은 바로 TPM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활동이다.

TPM 활동, 즉 전원참여 생산보전은 전사 자매결연을 통해 사무 스텝이 지원 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정 파트장은 이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2017년 공정최적화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창원에 상주하는 연구소, 행정지원본부, 품질보증실, 생산관리실 등 사무 부서와 공장 주임 단위를 자매결연으로 묶어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QSS사무국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을 아끼고 지원하는 공장장님을 비롯한 사무 스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항상 가동 중인 공장에서 청소 활동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무 후 자발적으로 남아서 하거나 짬짬이 생기는 유휴시간을 활용해 지원해 주셔서 가뭄에 단비와 같았습니다. 가끔 활동을 마치고 삼겹살에 술 한잔 기울이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덤으로 주어져 좋았습니다.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 세아창원특수강 은상 수상팀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3 - 소경공장 기계 보수 작업장 공정최적화 개선 전·후



Suitable

세아창원특수강에 적합한 공정최적화 프로세스를 적용하다

세아창원특수강 공정최적화 활동은 3대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내 직장은 내가 가꾼다는 ‘주인의식’, 특출한 소수정예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동참하는 ‘전원참여 의식’,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한다는 생각! 언제가 할 일이면 지금 당장에! 어차피 할 일이면 스스로! 한다는 ‘솔선수범’의 정신이다. 수상팀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에 적합한 프로세스를 찾고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했다.

“과거에도 공정최적화와 같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과 같은 성과는 거두지는 못했죠.

어려운 5S와 TPM의 이론과 교육, 반드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방식의 경직된 진행, 활동 결과를 정리해야 하는 문서작성의 부담감 등은 현장에 고충을 더했고, 결국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실패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초기 청소 → 오염원 제거 → 정리, 정돈, 청소 → 도색 및 VM → 유지관리’ 5단계 절차를 만들고 표준화했습니다. 또한 과거 수십장씩 만들었던 활동 장표도 2장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근무 후 2.5시간씩 남아서 활동한 것이 모두 작용해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Spread

성공사례를 전사로 전파하다

지난 3년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많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강관팀 김성준 주임은 도색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처음엔 페인트 배합 방법을 몰라서 바닥용을 설비용으로 잘못 섞어 바닥이 찢득찢득해 재작업한 것, 설비 상부에 타각기로 페인트를 벗겨내고 도색하기 위해 스카이저 타고 작업한 기억들, 한겨울에 도색 작업 후 동파되어 영망이 된 일 등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40년 넘은 공장을 새 공장으로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전원참여를 유도해 추진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경험을 타 공장에 전달하여 벤치마킹 시 실패사례를 줄이도록 한 것은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소경공장의 성공사례는 성공체험 전파 교육을 통해 세아

창원특수강 전사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교육은 소경공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궁금한 점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현장 교육 형태로, 타 공장 주임, Key-job, 팀/파트장, 기술엔지니어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했다.

세아업적상 혁신부문 세아창원특수강 은상 수상팀은 공정최적화 활동을 통해 설비 고장 강도율과 소경제품 불량률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는 물론, 깨끗한 작업환경 구현과 현장 직원들의 해당 공정 일상점검 및 관리 의식의 개선도 이루었다. 또한 프로세스에 맞추어 압출 Glass 자동화, 설비 이설 등 공장을 재배치함으로써 물류 개선도 이뤄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품질 불량 개선을 위해 항상 점검하고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공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4 - 수상팀 7명 전원이 인터뷰를 위해 소경공장에 모였다.



4

‘미래 먹거리’

강관제품은 고부가가치 제품이며, 회사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 활동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ONLY ONE, BEST QUALITY 제품을 생산해 영속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관팀 소경파트 정재욱 파트장

‘미래’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 모듈을 만들 수 있고, 강관 제품의 흑자 실현이 머지 않아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강관팀 소경파트 김성준 주임

‘저금 통장’

무계목 강관을 생산하는 소경파트는 수많은 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차곡 차곡 쌓여가는 적금통장처럼 노하우가 축적되면 회사에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강관팀 소경파트 오관성 주임

세아창원특수강에서 우리 팀은 000이다

‘희망’

회사 전체가 어렵지만 강관팀은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 회사에서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관팀 소경파트 정진호 주임

‘부화’가 임박한 봉황의 일

모두가 하나되어 각종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강관팀 소경파트 정연욱 주임

‘불사조’

전설에 나오는 ‘불사조’처럼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계목 강관 제조 기술을 향상해 글로벌시대의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관팀 소경파트 신위선 주임

‘유망주’

회사에서는 강관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망주로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관인 전원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관팀 소경파트 강정훈 주임

세아인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조직 생활, 자기 개발, 인간관계, 처세술, 진로 고민, 외국 생활 등 직장에서 겪는 세아인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세요. 13년 차 직장인이자 상담가인 최과장이 상담해드립니다. '최과장의 심리상담'에서 상담해줬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이메일(seahfamily@naver.com)로 보내주세요. 익명성이 보장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 매달 3명의 고민이 실릴 예정입니다.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달드릴 예정이오니, 메일 하단에 성함과 휴대폰 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카운셀러 소개 | 최과장 (필명)

13년 차 현직 직장인.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졸업 후,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직장인 대상 심리상담서 「오늘, 내대신 출근 좀 해줄래?」 저자이며, 브런치에서 최과장의 직장인 심리생활(<https://brunch.co.kr/@sogangbest>)을 연재하고 있다.

싫은 소리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제 자신이 답답해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동료직원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생깁니다.
가끔은 화도 내면서 짜증도 내고 싶죠.
그런데 그걸 잘 못 하겠어요.
'그냥 내가 참고 말제!' 생각하고
결국은 진짜 참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제 모습을 보고
'OO 씨는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유순하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정말 속이 터집니다.
계속 속으로 삭이다 보니
저만 골병이 드는 것 같습니다.



A. 회사에서 천사표로 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쉽게 감정을 표출하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숨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손바닥으로 잠시 해를 가렸다고 해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솔직한 감정을 숨긴다고 그 감정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적절한 감정 표현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 필수입니다. 동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꼭 하고, 다만 그 방법에만 좀 더 신경 쓰면 됩니다. 화가 나면 화난 그대로 동료직원에게 말하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상심한 생선이라도 잡은 채 그대로 손님에게 내어주면 먹을 수가 없겠죠? 정성껏 손질하여 손님에게 먹기 좋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말도 잘 알아듣게 손질해서 들려주면 됩니다. '나는 이리이러한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내가 생각할 땐 아마도 이리이러한 이유로 그렇다. 이 점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이 점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의 생각도 듣고 싶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당신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조곤조곤 전해보는 겁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당신 속 또 다른 당신을 만나지 못한 것뿐입니다.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만나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산책하고 명상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고 여행을 떠나 봐도 좋고요, 아무리 바빠도 나의 마음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찾아봐요, 내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입니다.

Q2

월요일에 출근하기가 너무 싫어요

‘월요일에 출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각이 좀 더 강렬한 것 같습니다. 보통 금요일 오후부터 기분이 들뜨기 시작하고, 그 기분은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일요일 정오가 넘어가면 급격히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프다고 하며 갑작스레 연차를 낼까? 아이가 아프다고 할까?’ 등등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회사에 가면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고, 주말을 기다리며 일합니다.

A.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와 워라벨 문화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14년 차 직장인인 저도 요즘처럼만 일한다면 정말 회사 다닐 만할 것 같아요. (앗 너무 끈대 같은 말이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은 여전히 직장인에게 두려운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월요병을 조금이라도 떨칠 수 있을까요? 일단 월요일에 할 수 있는 좋아하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클래스를 듣거나, 독서 클럽 모임에 가는 등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주 월요일, 당신이 좋아하는 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월요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울감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월요일을 기다릴 만한 ‘특별한 날’로 만드는 것이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목요일입니다. 저도 다음 주 월요일 퇴근 후 좋아하는 무엇을 할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단둘이 영화를 한 편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아이들을 봐주시는 저희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겠지만요) 아니면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간만에 집 근처 맛집 투어를 계획해 봐도 좋겠습니다. 모든 직장인의 월요병이 치유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Q3

상사가 일을 시키면 겁부터 납니다

7년 차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팀장님이 제게 일을 주시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시받은 일은 그럭저럭 잘 해냅니다. 물론 아주 완벽히 잘했다는 칭찬을 들은 적도 별로 없지만, 상사를 실망하게 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일을 맡을 때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욕을 안 먹고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일까요?



A. 팀장님께 새로운 일을 받을 때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불안한 생각이 자주 든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마도 당신은 ‘팀장님이 시킨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결과 팀장님과 동료들이 당신에게 실망하게 될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인지행동치료 심리학자 아론 벡(Aron Beck)은 이를 ‘자동적 부정적 사고’로 설명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사고를 말하죠. ‘나는 원래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생각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원래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잘못된 믿음).’ → ‘그러므로 팀장님이 일을 시키면 나는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다(자동적 부정적 사고).’ → ‘그래서 팀장님이 일을 시키면 불안하다. 피하고 싶다(부적응적 정서).’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과거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팀장님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위 동료들이 워낙 뛰어나 보이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는 열등감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차치하고 ‘나는 원래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나요? 실제 실력이 있고 없고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실제 능력이 있지만 내가 없다고 믿으면 그 실력은 발휘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에 대해 항상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분명 잘했다고 느끼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떠올리고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스스로에 대한 칭찬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칭찬입니다.

추억은 방울방울 아이들과 함께 다시 찾은 그때 그 장소

세아홀딩스 재정팀 이미정 수석 가족

과거엔 '가족'을 식구(食口)라 부르며,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함께 밥을 먹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지금은 그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2015년 여름, 첫째를 임신한 이미정 수석은 남편, 친정 부모님과 함께 막국숫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이곳을 다시 찾았다.

2015

벧속아이와 함께 찾았던
막국숫집



2019

네 식구와 함께 다시 찾은
추억의 장소

벚속 아이와 함께했던 막국숫집

무더운 여름의 막바지,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막국숫집에서 이미정 수석의 가족을 만났다. 이곳은 2015년 여름, 이 수석이 첫째 서진이를 임신했을 때 찾았던 곳으로 부부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다. 그녀는 4년 전 방문했을 당시를 회상했다.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입덧을 심하게 한 건 아닌데 느끼한 음식이나 고기를 잘 못 먹었어요. 딸을 임신하면 야채나 과일이 당긴다고 하더니 실제로 제가 그렇게 돼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에 먹었던 동해막국수가 계속 생각나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이곳을 방문했죠. 특히 그날 나눈 부모님과 대화 덕에 더욱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결혼 전, 친정엄마가 ‘미정아 네가 아이를 낳더라도 내가 돌봐주는 건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는 것에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밥을 먹을 때 친정엄마께서 아이를 낳으면 도와줄 테니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죠. 내심 아이 낳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엄마의 한 마디 덕분에 고민을 덜었고 막국수와 수육을 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미정 수석 부부에게는 사랑스러운 두 아이가 생겼다. 아이들은 첫 방문이라 낯설어할 법도 했지만, 어색한 기색 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즐거워했다. 그도 그럴 것이 막국숫집 앞에는 다양한 조형물로 꾸며진 조각공원이 있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끌기에 충분했다. 조각공원에는 4년 전 부부가 함께 찍었던 사진 속 장소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라고 적힌 향아리로 조형물. 그 앞에서 부부와 아이들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었다.

가족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

이날 촬영에는 이미정 수석과 남편 김진환 씨 그리고 두 아이 서진이, 서현이가 함께 했다. 이미정 수석은 가족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세아홀딩스 재경팀 이미정입니다. 저는 요즘 대세에 맞게 연남과 결혼해 연년생 5살 딸, 4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요즘 말하는 츤데레 스타일입니다. 경상도 남자라 빈말은 못 하지만, 산책을 좋아하는 저를 데리고 무심한 듯 동네 한 바퀴를 돌아주는 사람입니다. 첫째 서진이는 어느 여자아이와 다르지 않은 핑크 공주입니다. 옷도, 신발도, 심지어 색연필도 모두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둘째 서현이는 누나를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것 같습니다. 장난을 심하게 쳐서 누나를 울리기도 하지만, 막상 누나가 안 보이면 가장 먼저 누나를 찾곤 합니다.”

- 1 - 시인이 운영하는 막국숫집 앞 조각공원에는 아름다운 글귀가 적힌 표지석으로 가득했다.
- 2 - 엄마, 아빠와 함께 노는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 3 -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의 품에 꼭 안겼다.

이 수석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지 묻자, 제2의 삶을 준 존재라고 답했다. 그녀는 결혼 전후를 기준으로 삶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저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어리광을 부리고 사랑을 받는 데 익숙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 아이들을 보살피고 이 사랑을 주니까 제 삶과 역할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2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회사일로 지칠 때, 집에 돌아와 가족들을 만나면 언제 지쳤냐는 듯이 기운이 샘솟습니다.”

이미정 수석의 가족은 지난해 세아타워에서 진행된 세아홀딩스 가족 초청 행사에 참여한 바 있다. 아이들은 세론이 인형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엄마의 회사와 동료들을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일하는 곳을 보여주고 싶어서 가끔 주말에 아이들을 회사에 데리고 와서 구경을 시켜주곤 합니다. 길에서 회사 사람들을 만나면, ‘엄마 회사 친구야~’라고 아이에게 소개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첫째가 자고 있을 때 회사에 출근한 적이 있는데, 아이가 퇴근한 저에게 ‘엄마, 혼자 회사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온 거야?’ 하면서 투정을 부리더군요(웃음). 아이는 엄마가 회사에 가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회사라고 부르면서 자기네 회사에는 인형이 많다고 자랑을 한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엄마 회사가 아주 재미있는 곳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아 패밀리 촬영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부부는 입을 모아 말했다. 이미정 수석의 가족에게 앞으로도 즐거운 추억이 많이 쌓이길 바란다. ☺



뾰족한 철의 위대한 변신

피뢰침

뾰족한 철 하나가 사람이 벼락 맞을 확률을 바꿨다면 믿어지는가? 바로 피뢰침 이야기다. 미국의 초대 정치가이자 과학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위대한 발명품인 피뢰침의 역사와 원리에 숨어 있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천둥, 번개가 칠 때 우산을 쓰고 걷던 사람이 벼락을 맞았다'거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를 피하려고 커다란 나무 아래 있던 사람이 벼락을 맞았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벼락은 공중의 전기와 땅 위의 물체에 흐르는 전기 사이의 방전 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번개가 땅에 떨어지면 벼락이 된다. 땅의 뾰족한 부분에 떨어지기 쉬워 천둥, 번개가 칠 때 우산을 쓰고 있거나 나무 밑에 있으면 벼락 맞을 확률이 더 높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살았던 로이 설리번은 벼락을 가장 많이 맞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그는 1936년 세네토어 국립공원에서 산림감시원 일을 시작한 뒤 1942~1977년까지 벼락을 7차례나 맞았다. 벼락을 맞을 때마다 화상 등 여러 가지

부상을 입었지만 운 좋게 매번 살아남았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이 벼락 맞을 확률은 3000:1로 무척 드물다. 벼락에 의한 전류를 땅속으로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피뢰침 덕분이다. 피뢰침(避雷針)은 끝이 뾰족한 철로 만든 막대기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우레(천둥)를 피하기 위해 만든 바늘 모양의 장치'라는 뜻이다. 벼락으로 생기는 건물의 파손이나 화재,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주로 빌딩이나 전원주택의 옥상, 공장의 굴뚝 등 건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운다.

피뢰침의 탄생은 지금으로부터 2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뢰침을 발명한 사람은 우리에게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정치인으로 더 널리 알려진 벤자민 프랭클린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치가와 외교관뿐만 아니라 과학자로도 왕성하게 활동한 인물이다. 당시 사람들 대부분은 번개, 벼락을 빗만 내는 무서운 존재로 여겼지만, 호기심 많은 그는 달랐다. '전기적 현상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가졌던 것.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그는 번개, 벼락이 전기적 현상을 갖는지 실험하기 위해 전기가 통하는 물체인 열쇠를 연줄 끝에 매달아 하늘로 날렸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번개, 벼락이 전기적 현상이라는 것을 규명하기에 이르렀다.

더불어 오랜 연구 끝에 벼락이 칠 때 전류가 건물이나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고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피뢰침을 발명한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752년 자신의 집에 피뢰침을 설치했다. 이어 1753년부터 1782년까지 29년 동안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만 피뢰침 400개가 설치됐다. 그 뒤로 영국에 덩턴 등대, 독일 함부르크 성야곱교회, 프랑스 다종 과학시원회 등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피뢰침이 확대·보급됐다.

피뢰침은 돌침부와 피뢰도선, 접지전극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세 갈래로 갈라진 막대기 모양의 돌침부가 돌침부의 돌침인데, 주로 용융아연도금을 한 철로 만들어진다. 땅에 묻히는 부분인 접지전극에도 철을 사용한다. 요즘에는 내식성이 좋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 피뢰침이 많다. 피뢰침은 전 등선이나 전화선,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간격을 두고 보호해야 할 대상의 바깥에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피뢰침을 정점으로 한 60°의 원뿔 내부라면 웬만한 벼락은 맞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



세아 뉴스

세아그룹과 주요 계열사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전합니다.

| 세아창원특수강 |



경상남도 교육청 장학금 전달식 개최

지난 9월 20일, 세아창원특수강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성지경 지원본부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창수 소장이 자리했다. 장학금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총 14명의 중고생들에게 지원하여 재능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 세아씨엠 |



하반기 세아씨엠 한마음 야유회 시행

세아씨엠은 지난 9월 21일 하반기 '세아씨엠 한마음 야유회'를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목적으로,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과 가족들이 모여 진행되었다. 세아씨엠은 앞으로도 직원과 직원들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야유회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세아 M&S |



2019년도 임금협약 조인식 개최

세아 M&S는 10월 1일 여수공장에서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하였다. 마정락 대표이사는 노동조합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큰 이해를 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어서 마정락 대표이사는 회사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설명했고, “여수공장에서 지난 9년 동안 시행했던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성공적으로 해외사업장을 조기 완공해 글로벌한 세아 M&S를 3년 이내에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다.



사우 동정

세아제강지주

조의

김기웅 SSUSA(부친)

세아제강

입사

오민교 군산 품질경영팀

결혼

김강일 회계팀

김문수 포항 생산팀

출산

함형돈 서울영업2팀

조의

조현웅 구매팀(부친)

이성철 포항 공장혁신팀(부친)

정재성 영남영업소(부친)

이희걸 영남영업소(모친)

하정우 포항 품질경영팀(빙모)

세아베스틸

출산

김성관 인재운영팀

류영주 고객기술지원센터

김승현 안전환경팀

변용모 대형압연팀

신광섭 기획팀

강화석 공정연구센터

이승주 1제강팀

허정범 소형압연팀

허 석 글로벌마케팅팀

윤민호 품질보증2팀

조의

송기영 연주팀(부친)

백수기 에너지관리팀(모친)

박안희 1제강팀(빙부)

오인철 대형압연팀 (빙부)

이정규 소형압연팀(빙부)

김영환 서울영업팀(빙모)

신현묵 1제강팀(빙모)

세아창원특수강

결혼

서강식 3제강팀

조정규 설비지원팀

문희중 공정연구그룹

하태화 압연설비팀

조의

노윤하 3제강팀(부친)

김성열 에너지관리파트(부친)

조병무 대형압연팀(모친)

정재택 2제강팀(모친)

세아특수강

입사

김건우 서울 경영지원팀

김구현 서울 경영지원팀

김범주 서울 경영지원팀

김수연 서울 경영지원팀

오형준 서울 봉강영업팀

신용환 포항 생산팀

장은희 포항 업무지원팀

출산

김영환 충주 품질보증팀

조의

허재영 서울 V프로젝트팀(부친)

세아씨엠

입사

고은비 품질경영팀

권은영 생산2팀

결혼

조세훈 품질경영팀

조의

김승모 1CC(빙부)

세아 ESAB

조의

김기호 생산팀(빙모)

세아 FS

조의

임갑수 작업지원(부친)

김재원 기계정비(부친)

양승호 생산팀(모친)

김종태 연속도금(빙부)

조기훈 TDW교정(빙부)

세아메탈

출산

강성규 생산팀

조의

신상호 경영기획팀(부친)

김민규 생산설비팀(부친)

세아 L&S

입사

이준한 판매기획팀

세아 M&S

입사

홍성대 생산팀

배주원 설비관리팀

이혜성 설비관리팀

차설화 경영지원팀

정기만 환경안전팀

결혼

이승훈 생산팀

김아림 재경팀

세아엔지니어링

입사

김도윤 개발2팀

김동영 개발2팀

조의

이희연 블로워생산팀(모친)

세아네트웍스

입사

최상순 신재생에너지사업팀

결혼

정준용 해외사업팀

조의

차형일 3팀(빙부)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우리 집에 특별한 동거인이 있다? 강아지, 고양이, 장수하늘소, 히틀러람쥐, 이구아나 등등. 세아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매 호 한 분의 사연을 선정해, 반려동물용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세아홀딩스 인재경영팀 이상근 수석

우리동네 책임자, 한이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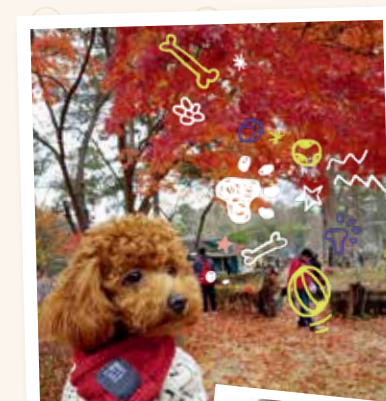
* 책임자: 아주 커다란다는 뜻의 '해'와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인사이터(insider)'의 합성어.

- 견종: 푸들 🐶
- 성별: 남아 ♂
- 특징: 애교가 많고 산책을 좋아함 🌿

지난해 봄, 저희 부부에게 '한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한이의 이름은 장인어른께서 아내의 '한' 씨와 제 '이' 씨를 붙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이는 만화영화 '달려라 하니'의 주인공처럼 달리기를 잘합니다.

한이는 “앉아”, “엎드려”, “손 쥐” 보다 산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첫 나들이에 나선 한이는 길을까 말까, 여긴 어딜까, 난 누굴까 고민하더니 고개를 푹 숙이며 냐다달리기 시작했고, 그날 반포대교에서 압구정을 지나 가로수 길까지 신나게 놀았습니다.

어느덧 한이와 지낸 지 1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이와 함께 갈 수 있는 단골 카페와 식당이 생겼고, 산책길에 강아지 친구들과 인사를 하며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산책할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려고 고집을



피우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귀엽기도 너무 귀엽습니다. 한이는 애교가 많은 편이라, 행동 하나하나가 어찌나 예쁜지 모릅니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친구를 만날 때 어쩔 줄 몰라 하며 꼬리를 흔들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길 텐데, 한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응모 방법

- 1 반려동물과 얹힌 에피소드를 8~10줄 내외로 작성한다.
- 2 반려동물이 잘 나온 사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2~3장(1MB 이상) 고른다.
- 3 메일에 사연과 사진을 첨부하고, 개인 정보(소속, 직책, 이름)와 반려동물 정보(이름, 종류, 나이)를 함께 기재해 커뮤니케이션팀 이유진 대리(yujin.lee@seah.co.kr)에게 보낸다.

📅 9+10월호 선물



이노하우스 애견매트